

2026. 9. 28 (월)

미·중 2차 정상회담: 중국이 내준 것과 원하는 것

- 중국이 내준 것: 석탄·농산물·희토류 등 실물 교환에서 먼저 양보
- 중국이 원하는 것: 전략적 안정과 대만 이슈를 둘러싼 미국의 입장 변화
- 회담 결과는 기대 하회, 지수보다 이익 개선 퀄리티 종목 중심의 알파 전략 필요

글로벌 투자전략-신흥국
Analyst 최설화
xuehua.cui@meritz.co.kr

중국이 내준 것과 얻은 것

지난 5월에 이어 미·중 양국이 예정대로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열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9월 23~25일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국빈 방문이다. 회담 직후 신화통신과 백악관이 각각 성명을 발표했는데, 두 발표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합의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실물 교환만 보면 이번 거래는 비대칭적이다. 미국측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1) 향후 2년간 미국산 석탄 1,000만톤 이상 구매, 2) 농산물 구매 워킹그룹 가동 추진, 3) 희토류 공급 정상화까지 약속했다. 실제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얻은 것보다 내준 것이 훨씬 많다(표 1).

그렇다면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G2간 ‘전략적 안정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회담에서 확정된 새로운 양국 관계의 틀이다. ‘관리된 휴전’ 국면은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유리하다. 둘째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다. 구체적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철회하고, 대만 독립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에서 ‘반대한다’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단 이번 회담에서 대만 관련 양국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기에 2번째 목표는 사실상 또 얻지 못했으며, 이 사안은 향후 양국 경제 협력의 수위를 가늠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향후 3개월의 핵심은 추가 합의보다는 세부 항목들의 이행 여부와 대만·기술 의제의 진전이다. 구체적으로 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300억 달러의 관세 인하 기준과 세부 대상 품목들의 공개, ②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11/18~19)와 미국 플로리다주 도털 G20 정상회의(12/14~15) 전후로 대만과 AI 문제에서 양국입장 변화, ③ 27년 1월 10일 관세 휴전 만료에 대비해 올해 말 추가 관세 협상 재개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 금융시장 시사점: 기대 하회

금융시장 관점에서 이번 회담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존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1) 관세 휴전의 1년 연장 여부, 2) AI 분야에 대한 양국 입장, 3)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협력 여부였다.

1번은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연장 기간이 2개월에 그쳐 시장 기대치(1년)를 크게 밑돌았다. 2번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고, 3번은 핵 개발 및 통행료 징수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새로운 진전은 없었다. 즉 핵심요인들이 시장 기대를 하회했기에 중화권 금융시장에는 단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종 측면에서도 회담의 직접 수혜는 제한적이다. 소형가전, 완구, 장식품, 유아용 카시트 등 관세 인하 검토 품목의 수출주가 거론되지만, 300억 달러는 양국 규모 대비 작고 품목도 미확정이다. 대신 반도체와 AI 하드웨어들은 통제가 그대로여서 리레이팅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게다가 글로벌 변수도 커지고 있다. 미국 10년물 5%대 금리와 100달러대 유가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수 방향에 베팅하기보다 이익 개선이 확인되는, CSI300에 포함된 퀄리티 종목에 투자하는 알파 전략이 유효하다.

표1 26년 9월 미중 정상회담에 관한 양국 성명문 비교표

구분	항목
양측 공통	1) 존중, 공정, 호혜 기반의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 2) APEC, G20 상호 지원 및 참석 의향 3) 이란 핵, 국제 수로 통행료 반대 4) 300억 달러 관세 인하 5) 11월 AI 대화 및 소통 채널 6) 판다 대여
미국만 기재	1) 석탄 1,000만톤 이상 구매(27~28년) 2) 농산물 시장 접근 워킹그룹 3) 투자위원회 가동해 진일보 시장 개방 4) 희토류 공급 정상화 5) 미국, 중국에 정제유 증산 요청 6) 러시아 북한 논의 7) 미중러 3자 군비통제 8) 초지능(SI) 용어
중국만 기재	1) 쿠알라룸푸르 합의 연장(기한 미명시) 2) 2차대전 동맹 역사 3) 군 위기 소통 MOU 4) 미국 유해 수색 협력
양측 미기재	1) 대만, 반도체 수출 통제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